

공동공포

이웃공동체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캄보디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구한 역사와 한 시대의 번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인 '앙코르와트(Angkor Wat)'와 거대한 벵골보리수뿌리가 웅장한 사원 건축물을 뒤덮으며 무참히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자연의 생명력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하게 하는 '따 뽀롬(Ta Prhom)'을 기억할 것이다.

1975~1979년에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주 공산당에 의해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과 공포의 현장이었던 '킬링필드'와 혁명정권의 악명 높은 신문, 고문, 유치실로 쓰였던 만행의 전시관인 '뚜올 슬랭(Tuol Slang)'도 관광객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섬뜩함과 가슴저림을 안겨준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아직 1,500만 명도 채 못 되고 있는데 유사사망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AIDS로 연간 15,000명이 죽는가 하면 1997년 이후 지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매달 265명이 지뢰로 인해 지체를 잃고 있다고 하니 인구의 3%가 지체장애우인 것은 당연하다. 1969년 캄보디아가 베트남전쟁에 말려들기도 했지만 3년 9개월간의 공산당의 학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음료수, 공중위생, 보건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유엔의 걱정거리이다. 1인당국민총생산이 2004년 기준으로 314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해마다 풍토병인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전인구의 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폭력이다'라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대로 이 빈곤의 폭력이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이다. 국내 정수기사업의 선두업체인 웅진코웨이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오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빗물을 건기에는 웅덩이 물을 향아리를 이용해서 걸러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펌프 우물을 파주는 일이다.

지난 9월16일~23일까지 1주일간 여성환경연대는 웅진코웨이의 주선으로 23번째 우물 완공식, 고아원 방문 그리고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펴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웅진의 사회봉사단원들, 홍보대사인 윤다훈씨를 비롯한 홍보요원들, 수질검사를 하기위한 지질학회 회원들,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이미영 사무처장과 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Cambodia Story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하게 된 데는 웅진코웨이의 우물 프로젝트가 앞으로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의 여성환경인의 보살핌이 필요해 질 거라는 웅진코웨이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아시아 여성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고민이 맞닿았다. 이미영 사무처장과 나는 방문기간 중 짬을 내어 여성환경연대가 기획 중에 있는, 가난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인 공정무역 관련 과제를 찾아 나섰다. 방문시기가 마침 그들이 중시하는 추석명절과 맞물려서 계획한 작업장 방문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방문이 가능했던 시설은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기초가 다져진 장애우들의 수공예장이었다.

앞으로 계속 공정무역뿐만이 아닌 교육활동 등의 여타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펌프 우물이 설치되는 곳마다 세워지는 표지판에 웅진과 나란히 여성환경연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선언한 5대과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다. 수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 주고 사원들의 봉사정신을 이웃나라에 미치게 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험한 길을 달려서 찾아간, 우물이 만들어진 곳곳에서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환호하며 신나하는 풍경에서 나눔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행한 지질학자들이 퍼 올린 물의 수질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우물을 파주는 일에 멈추지 않는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었고, 일행이 방문한 고아원에서는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어린이를 안으면서 50년대 학창시절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6.25의 아픔을 되새기기도 하며 돌봄의 따뜻함을 체험했다.

수도 셀 수 없을 두개골이 보존되고 있는 '킬링필드'와 고문기구와 피살자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 '푸을 슬랭'을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에서 이웃의 침략을 받은 바 있으며 동족상잔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기에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공산혁명치하에서 죽어간 200만 명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3명씩 지명한 사람들이 다시 끌려오면서 쌓이게 된 숫자이기에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신뢰마저 깨져버렸을 정도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란 물을 공급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사랑방구실을 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우물가에서 주민들은 애환을 나누며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물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웅진코웨이가 설치한 우물들은 <공동펌프우물>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10가족 이상의 공동우물로 하고 있다. 공동펌프 사업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상실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그 수를 늘려갈 공동펌프우물사업이 캄보디아의 사라졌던 <이웃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구촌의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가려는 웅진 코웨이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며 여성환경연대와외의 파트너십이 캄보디아의 여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 ♡

2006_30호

2006년 통권 30호 격월 발행 발행일 : 2006년 10월 29일 발행처 : (사)여성환경연대 발행인 : 박영숙, 이상화, 남미정, 김수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8호 전화 02) 722-7944 전송 02) 723-7215 홈페이지 <http://ecofem.or.kr> E-mail : kwen7944@hanmail.net

여성환경연대 소식지 2006년 통권 30호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2006-10-26
15.4.14

공동펌프우물과 이웃공동체

박영숙 본 연대 으뜸지기

캄보디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구한 역사와 한 시대의 번성을 입증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인 '앙코르와트(Angkor Wat)'와 거대한 벵골보리수뿌리가 웅장한 사원 건축물을 뒤덮으며 무참히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자연의 생명력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하게 하는 '따 뿌롬(Ta Prhom)'을 기억할 것이다.

1975~1979년에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루주 공산당에 의해 2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과 공포의 현상이었던 '킬링필드'와 혁명정권의 악명 높은 신문, 고문, 유치실로 쓰였던 만행의 전시관인 '뚜올 슬랭(Tuol Slang)'도 관광객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섬뜩함과 가슴저림을 안겨준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아직 1,500만 명도 채 못 되고 있는데 유아사망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AIDS로 연간 15,000명이 죽는가 하면 1997년 이후 지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매달 265명이 지뢰로 인해 지체를 잃고 있다고 하니 인구의 3%가 지체장애우인 것은 당연하다. 1969년 캄보디아가 베트남전쟁에 말려들기도 했지만 3년 9개월간의 공산당의 학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음료수, 공중위생, 보건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유엔의 걱정거리이다. 1인당국민총생산이 2004년 기준으로 314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여서 해마다 풍토병인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전인구의 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빈곤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폭력이다'라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대로 이 빈곤의 폭력이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이다.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캄보디아 오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선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국내에서도 좋은 물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이다. 우기에는 빗물을 건기에는 웅덩이 물을 향아이를 이용해서 걸러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펌프우물을 파주는 일이다.

지난 9월16일~23일까지 1주일간 웅진의 이진부회장님이 이끄는 사회봉사활동단이 캄보디아를 찾은 것은 23번째의 우물을 기증하는 일과 고아원방문 그리고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펴기 위해서였다. 이번 방문단에는 웅진의 사회봉사단원들, 홍보대사인 윤다훈씨를 비롯한 홍보요원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지질학회 회원들,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의 이미영 사무국장과 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환경연대가 여기에 가담하게 된 연유는 이진부회장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다고 여겨진다. 캄보디아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물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여성환경인들의 보살핌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찾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성환경연대가 기획 중에 있는, 가난한 동남아의 여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인 공정무역관련 과제를 찾아 나섰다. 방문시기가 마침 그들이 중시하는 추석명절과 맞물려서 계획한 작업장 방문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방문이 가능했던 시설은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기초가 다져진 장애우

김치라

들의 수공예장이었다. 앞으로 계속 공정무역뿐만이 아닌 교육활동 등의 여타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펌프우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세워지는 표지판에 웅진과 나란히 여성환경연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선언한 5대과제 중의 하나인,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에 웅진코웨이가 함께하고 있다. 수인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사원들의 봉사정신을 이웃나라에 미치게 하기 위한 이번 웅진의 캄보디아 나들이에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험한 길을 달려서 찾아간, 우물이 만들어진 곳곳에서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환호하며 신나하는 풍경에서 나눔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행한 지질학자들이 퍼 올린 물의 수질을 점검하는 모습에서 웅진의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었고, 일행이 방문한 고아원에서는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어린이를 안으면서 50년대 학창시절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6.25의 아픔을 되새기기도 하며 돌봄의 따뜻함을 체험했다.

수도 셀 수 없을 두개골이 보존되고 있는 '킬링필드'와 고문기구와 피살자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 '뚜올 슬랭'을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에서 이웃의 침략을 받은 바 있으며 동족상잔의 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기에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공산혁명치하에서 죽어간 200만 명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3명씩 지명한 사람들이 다시 끌려오면서 쌓이게 된 숫자이기에 지금도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신뢰마저 깨져버렸을 정도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란 물을 공급해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사랑방구실을 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우물가에서 주민들은 애환을 나누며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물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웅진이 설치하는 우물은 <공동펌프우물>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10가족 이상의 공동우물로 하고 있다. 웅진이 벌이는 이러한 사업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상실했던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그 수를 늘려갈 웅진의 공동펌프우물이 캄보디아의 사라졌던 <이웃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에 온정을 베풀고 있는 웅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에 여성환경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공동협동우물 리이웃공동회

(응진코웨이와 함께 캄보디아를 돌리보고)

박영숙

봄에대 으뜸지기

캄보디아를 아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추구하는 역사와 한시대의 번영을 접목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앙코르 왓 (Angkor Wat)' 이 거대한 베낭보리수 뿌리가 웅장한 사원건축물을 뒤덮으며 무함히로 둘러싸고 있는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생애력 속에서 인간의 무용함을 심하게 하는 것이라 보면 (Ta Pihom)을 기억할것이다.

1975~1979년에 필드라는 가이스트 크레우 루크 공산당에 의해 200만명이 죽은 엄청난 세계적사상 유적이 있는 비극과 공화국의 현상이 있던 '킬링 필드'의 항쟁 36년의 악몽들은 시골, 고을, 구치소로써 여럿이 산해가 된것으로 '투올 슬렝 (Tuol Sleng)'도 관망객들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함께 자취를 남긴다는 심뜻함의 가슴저림을 안고있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이제 1500만명으로 채 못하고 있는데 국내내수로는 중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AIDS로 인한 15,000명이 죽는 거대한 19세기 이후 지뢰로 인해 사망한 피해와 부상된 당해는 5200이 수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24만 265명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인구의 30%가 지뢰로 인해 무인지는 라고한다. 1969년 캄보디아가 베트남전쟁에 말려들기로 했을때부터 30여년간의 공산당의 학살로 인해 이 나라에는 수백만 고아들이 생겼으며 지뢰고 악몽.

세계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가 하루 1분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유류, 광물, 농산물, 천연자원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두번째로 가난하다. 1인 국민총생산이 2004년 기준으로 314달러 불과한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다. 동남아시아 장티푸스, 말라리아, 이질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 캄보디아에 전염자의 50%만이 알려진 실수를 공급받고 있다. (빈곤이야말로 두렵고 해악한 폭력이다)라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말대로 이 빈곤의 폭력이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이다.

호랑이 치레에, 보충되어 있는 캄보디아 오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무료 개척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시키고 있는 사회공헌팀이 국내에서도 좋은 물공급에 주목하고 있는 <응진코웨이>이다. 여기에는 빗물을 전기에는 음병이 물을 항아리를 이용해서 걸러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협동우물을 파주는 일이다.

지난 9월 6일 ~ 23일까지 1주일간 응진의 이진우회장이 이끄는 사회봉사 활동단이 캄보디아를 찾았으며 23번지의 우물과 기공행사 일과 고아원 방문, 그리고 나무심기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왔다. 이번 방문단은 응진의 사회봉사단, 홍보대생인 인디펜드메인을 비롯한 홍보교도들, 수질검사를 하기위한 지질학자 최원희, 인도산의 기러기 그리고 애송한병연대의 이시영사무국장 리 필리핀 포함하여 왔다.

애송한병연대는 여기에 가담하게 된 오우노 이진우회장의 특별한 보내려에서 있다고 얘기한다. 캄보디아 주민들에게도 개척한 물도 제공할까봐 우리나라 애송한병연대의 보살핌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게 되고 기적 같은 우물까지 파내게 되었다. 우리 두사람

